

나프타 상승세에 메탄올 하락세!

수입업협회, KOIMA 지수 155.32로 최고치 ... P-X·EG도 상승

국제유가 급등으로 8월 수입원자재 가격이 7월에 이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수입업협회는 10일8월 원자재 수입가격지수인 KOIMA 지수(1995년 12월=100)가 7월보다 9.86p 상승한 155.32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2004년 들어 KOIMA지수는 6월 소폭 하락했을 뿐 꾸준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다른 원자재의 동반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업협회는 “2004년 초와 같은 중국의 대량구매 움직임 발생시 제2의 원자재 파동까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8월 원자재 가격 중 하락품목은 11개로 7월보다 1개 늘어났고 상승품목은 7월과 같은 1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보합품목은 5개에서 4개로 줄었다.

상승품목은 소맥, 옥수수, 원유, 금, 팜유, 나프타, 프로판, P-X, EG, 카프로락탐, 원면, 선철, 빌레트, 슬랩, 전기동 등 1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하락품목은 대두, 커피, 천연고무, 펄프, 고지, 원피, 메탄올, 양모, 알루미늄, 연, 니켈 등 11개 품목이고 철광석, 유연탄, 원당, 고철 등 4개 품목은 보합세를 보였다.

석유화학제품은 나프타와 프로판, P-X가 상승세를 탔고 메탄올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또 섬유원료는 EG와 카프로락탐, 원면이 상승세를 타고 양모가 하락세를 보였다.

유기·무기원료 중에서는 팜유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천연고무, 펄프, 고지, 원피가 하락했다.

<화학저널 2004/09/13>